



높아져가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 높아지는 스포츠출판물에 대한 욕구

허선

미국에서는 MLB, NBA, NFL, NHL 등 프로스포츠가 1년 내내 팬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최근엔 자동차경주 나스카(NASCAR : National Association For Stock Car Auto Racing)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스포츠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미국 출판계도 이에 발맞춰 스포츠출판물의 새로운 시장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여러 곳에서 출간된 스포츠출판물들을 한 곳에 모으는 브랜드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며, 출판사와 스포츠단체, 케이블 채널과 출판사가 각각 파트너십과 공동투자를 기획해 스포츠출판사업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또한 실제 스포츠 스타들을 망가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출판물이 시도되는 등 미국 스포츠 출판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스포츠 출판물의 브랜드화

요즘 미국 스포츠계의 화두는 무엇보다 나스카다. 미식축구에 이어 인기종목으로 자리잡은 이 경기는 라이선싱 사업이 1990년대 8,000만 달러에서 오늘날 2억 달러를 기록할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나스카협회는 나스카를 이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책이라는 점을 인식, 나스카 출판물을 출간한 12개의 출판사들과 함께 브랜드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의 핵심은 '나스카 라이브러리 컬렉션 THE NASCAR LIBRARY COLLECTION'의 창설인데 이는 공식적으로 라이선스된 책들과 여타 프린트물은 물론, 나스카닷컴의 온라인 서점을 나스카 라이브러리 컬렉션이라는 이름 아래 두는 것이다. 이러한 브랜드화는 공식 라이

이 캠페인 핵심은 '나스카 라이브러리 컬렉션'의 창설인데 이는 공식적으로 라이선스된 책들과 여타 프린트물은 물론, 나스카닷컴의 온라인 서점을 나스카 라이브러리 컬렉션이라는 이름 아래 두는 것이다. 이러한 브랜드화는 공식 라이



선스된 책들과 그렇지 않은 책들을 구별지우는 것으로 나스카협회의 공인을 받은 책들만 나스카 라이브러리 컬렉션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올해 나스카 라이브러리 컬렉션으로 출간될 책들은 모두 18종인데 처음으로 출판된 책은 DK출판사에서 나오게 될 《나스카 베스트 샷》이다. 이미 라이브러리 컬렉션사이트에서는 커버, 목차, 발췌문은 물론 책에 관한 다양한 설명을 소개하고 있어 벌써부터 팬들의 관심이 높다. 나스카협회측은 50만 고객들에게 제공될 인쇄물은 물론 라디오 광고와 무료 광고물을 이용해 나스카 라이브러리 컬렉션 소개에 힘쓰고 있다.

스포츠 출판물을 둘러싼 다양한 사업 확대

스포츠출판물의 시장이 점차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 전문채널과 출판사 혹은 스포츠 단체와 출판사의 공동 투자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확대가 시도되고 있다. 얼마 전 스포츠 전문 케이블 채널 ESPN은 자매회사인 하이퍼리온과 ESPN 서적사업을 확대하였다. ESPN 존 스키퍼 부사장은 “ESPN서적은 매년 10권에서 15권의 신간을 출간할 계획으로 2005년 4월에는 NBA 루키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독자들이 ESPN의 눈에 띄는 스포츠 보도를 책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대환영이었다”며 이번 전문 출판사와의 공동투자에 큰 기대를 보였다. 앞으로 ESPN 서적은 하이퍼리온으로부터 제공받은 유통과 편집 노하우를 ESPN작가들과 방송 담당자들에게 접목시키면서 스포츠 전문채널의 전문출판 풍토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출판그룹은 요즘 한창 상종가인 나스카를 주관하는 나스카협회와의 출판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어린이를 위한 레이싱북 출간을 시작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어린이 출판담당 부사장 헤롤드 크라크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경기를 책으로 만들게 돼 무척 기쁘다”며 “약 7,500만 명의 팬을 가진 나스카야말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에 의해 움직이는 출판물을 개발하려는 출판사의 전략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스카 라이선싱과 고객상품 담당 부사장 마크 다이어는 “점차 늘어나는 나스카 팬, 특히 어린이 팬들의 궁금증을 충족시켜주고 오락을 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양질의 책”이라며 리더스 다이제스트와의 파트너십 체결 배경을 설명했다. 나스카 관련

책들로 운전하는 선수들과 그들의 차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나스카 라인을 짧은 글과 컬러사진으로 소개하고 있는 《나스카 휴대용 책NASCAR CarryAlong Book》, 8세에서 12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나스카의 슈퍼스타들을 사진에 담은 《나스카 미들 그레이트 북스NASCAR Middle Grade Books》 등이 있다.

스포츠 스타들이 망가의 주인공으로

그동안 미국의 스포츠 스타를 소재로 한 출판물은 그들의 성공담을 그린 자서전이나 그들만의 운동법을 소개하는 교육서 또는 그들의 운동모습을 담은 사진집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색다른 모습으로 스포츠 스타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망가출판사 도쿄팝은 미국 농구협회와 팀을 이루어 《시네 망가 포토 코믹라인Cine-Manga Photo-Comic Line》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번에 첫선을 보이는 이 책은 NBA 스타들 중 샤킬 오닐, 케빈 가르넷, 팀 던컨 그리고 제이슨 키드 등 네 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쿄팝의 시네망가라는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디즈니, 니켈라던 등으로부터 라이선스된 콘텐츠를 다룬 것으로 유명한 만화영화나 장편영화의 스타사진 위에 말 풍선을 달고 음악효과를 더한 것이다. 이번 11월에 출간될 NBA 스포츠 망가 시리즈는 정지화면으로 처리된 NBA 스타들의 화려한 동작들이 디지털 이미지로 표현될 것이라고 한다. 도쿄팝 출판사 대변인 크리스티안 톰슨은 “매년 5,0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접하는 NBA 독서권장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월드컵이다, 올림픽이다 해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졌고, 해가 갈수록 새로운 페이지를 써가는 프로스포츠에 대한 팬들의 애정도 깊어져 가고 있다. 게다가 요즘에는 이종격투기, 여자 권투, 길거리 농구 등 새로운 스포츠 트렌드도 형성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출판물의 잠재독자도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포츠 시장의 성장에 비해 관련 출판물은 아직도 초보교실, 실전입문 등 교육서나 취미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련 전문단체와의 조인이나 새로운 장르와의 접목 등을 통해 다양한 출판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면 해당 스포츠의 저변 확대는 물론 잠재 독자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민**



나스카협회와 시네망가를 소개하고 있는 도쿄팝 출판사 홈페이지.